

100塔의 도시, 프라하

김 윤 기

도시 전체가 건축물 박물관

체코슬라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의 하늘은 뾰족뾰족 치솟은 탑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다. 이 탑이 무려 100여개나 된다. 프라하를 가리켜 「100탑의 도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건축물도 다채롭다. 11~13세기의 로마네스크건축, 13~15세기의 고딕건축, 16세기의 르네상스건축, 17~18세기의 바로크건축 등 각 시대의 건축물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처럼 여러시대의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도시는 유럽에서 드물다. 그래서 프라하를 가리켜 「건축물 박물관 도시」라고 한 사람도 있다.

도시 한복판으로 블타바강(江)이 흐른다. 우리나라에 몰다우江으로 알려진 강이다. 블타바江에는 13개의 다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카를르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다. 14세기에 착공, 5백년만에 완공된 이 다리는 양쪽 난간에 30개의 성인상(聖人像) 조각이 서 있다. 이 다리는 보통 다리

가 아니라, 하나의 조각예술품이다. 자동차는 못다니고 사람만 걸어서 건너게 한 것은 이 다리의 예술성 때문이다.

이 다리의 오른쪽 정면은 「바로크시대의 프라하」라고도 하는 호화로운 건물들의 집중지구다. 조금 고개를 쳐들면 건너편 언덕위에 거대한 프라하城이 있다. 둥근 구리지붕에 햇빛이 반사되면 묘한 분위기의 색깔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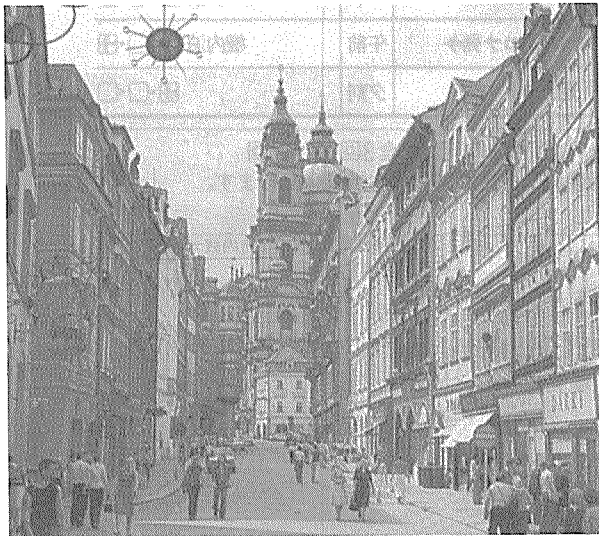
15세기에 세워진 옛성문 화약고탑(火藥庫塔), 구시청건물, 틴교회, 킨스키궁, 성아그네스 수녀원, 국민박물관 등이 강의 오른쪽 구시가지에 몰려 있다. 이들 건축물의 대부분은 14세기 카를르1세 때 건립된 것들이다.

강의 왼쪽에는 프라하城을 중심으로 쉘트대성당의 고딕풍 뾰족탑과 바로크풍 종루, 12세기의 스트라호프교회, 녹색의 둥근지붕과 중세의 탑이 있는 바로크풍의 성니콜라스교회가 있다.

해가 질무렵 카를르다리에서 보는 프라하의 풍치는 자못 환상적이다. 동화의 나



프라하의 변화가



라 어느 무대에 선 느낌마저 든다. 누군가가 프라하를 「중세의 보석」이라 부른 것이 이해가 간다.

프라하城의 난쟁이 마을

프라하城은 체코의 국부(國父)라는 카를르4세가 축조한 고딕식 성관이다. 성안에는 황금장식의 보물관이 있는 성십자가 교회, 고딕식에 르네상스, 바로크식을 가미한 14세기 성빅트교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10세기 로마네스크식의 성이지교회와 국립미술관이 이곳에 있다.

프라하미술관은 10~18세기 체코의 회화·조각작품 등이 수장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술관이다.

그러나 프라하城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즐라타·울리치카(黃金小路)다. 성이지교회에서 비탈길을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나타나는데 이 마을의 집들이 모두 작아 얼핏 보기에 난장이 마을처럼 보인다. 지붕도 낮고, 현관문은 허리를 굽혀야

드나들 수 있다. 원래 이 집들은 궁중에 사는 금은세공장인, 잡역부들이 살던 집인데 지금은 관광상품 매장으로 변했다. 식당·카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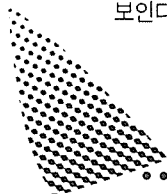
이 마을 22번지, 새까만 칠을 한 집이 눈을 끄는데 작가 카프카가 살던 집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화장을 질게 하고 요란한 옷을 입은 묘령의 아가씨들을 이 부근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각 시대의 궁전과 저택과 상인의 집

프라하 시내에는 몇개의 궁전이 있다. 여름궁전으로 건립된 르네상스식의 벨베데르宮은 16세기 브론즈로 만든 「노래하는 샘」으로 유명하다. 킨스키백작의 저택이었던 18세기 바로크식 킨스키宮은 지금은 국립미술관 관화부다. 프라하城 옆에 있는 발렌슈타인宮은 프라하의 대표적 건물로 알려진 호화로운 궁전이다.

교황에 불복, 프라하를 버리고 망명의 길을 떠난 보헤미아 귀족들의 뒤를 이어

▶ 슈테른베르크宮.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쓰인다. 뒤에 프라하성이
 보인다.



들어온 새로운 지배층(대부분이 독일계)도 다투어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다. 체르닌館, 모르징館, 웨르슈텐베르크館들이 그때 생긴 건축물이다.

프라하의 부유층 상인들도 나름대로 예술성 짙은 집을 지었는데, 요셉스카街, 모스테카街, 넬드바街 등에 지금도 드문드문 당시의 집들이 남아 있다. 우편배달부들은 이들 집들의 장식을 보고 「3개의 바이올린」, 「뱀」, 「금빛 열쇠」, 「천평(天秤)」 따위의 이름까지 붙였다.

프라하城에서부터 카를르다리를 지나 구시청사, 화약고탑, 프라하 중앙역에 이르는 길을 걷다보면, 건축의 타임터널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이처럼 각 시대, 그리고 각 직업·계층에 따라 각양각색 다채로운 건물을 짓고 사는 도시는 또 없다.

옛 시청의 이상한 天文시계

올드타운의 중심부는 舊市街 광장이다. 이 광장 일면에 구시청사가 있다. 너무 낡

아 푸르디딕해진 구시청사의 벽면에는 유명한 천문(天文) 시계가 있다. 이 시계는 보통시계와 달라 시간보는 법이 이상하다. 아뭏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12제자 인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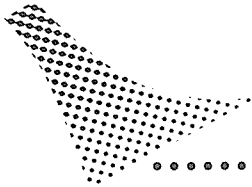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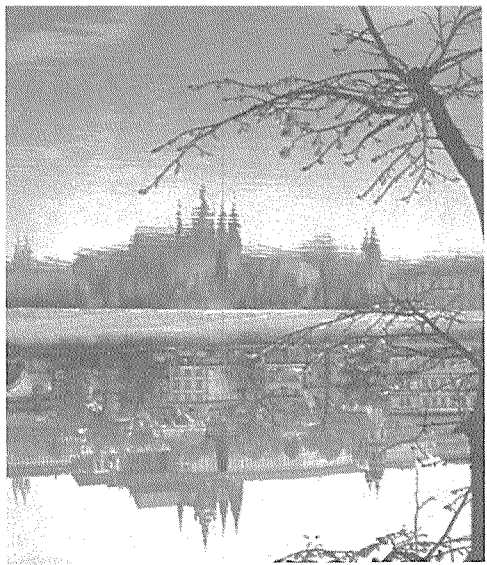
이 천문시계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15세기 카를르大學(현 프라하大學) 수학교수 「하스쥬」가 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아름답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 평판이 좋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라하市는 이 시계를 독점하기 위해 교수의 눈에 상처를 입혀 장님을 만들어 버렸다. 장님이 된 교수는 자신의 걸작품을 손으로라도 만져보고 싶어 시계탑에 올라갔는데 그가 시계에 손을 대자마자 시계는 서 버렸다. 그뒤 4백년간 이 시계는 죽어 있었다.

이 시계를 움직이도록 고친 것은 1860년부터이다. 나치 침공 때 구시청사는 파괴되었지만 시계탑만은 무사했다.

구시청사 건너에는 쌍탑의 거대한 틈교

▶ 물다우江에 비친 성비타 대성당.
이 대사원은 프라하城 안에 있다.



회가 있다. 너무 낡고 헐어 발로 걷어차면 넘어질 듯 보인다. 14세기에 창건되었다니 6백년이 넘는 건물이다.

광장 한복판에는 체코슬라바키아의 신학자 「얀·후스」像이 서 있다. 이 상 아래에는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켜라』라는 후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 잔악한 나치당과 공산당도 이 상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체코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이 상 하나만 봐도 가늠이 된다.

유태인 묘지와 文化人 묘지

카를르다리 바로 옆에 있는 아네스다리 오른쪽에 유태인 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유럽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데, 1350년경 묘비가 있다.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사용되었던 이 묘지에는 1만2천개의 묘지가 있다. 묘석을 12층으로 겹겹이 쌓아 마치 묘지 아파트 같다. 아카시아 나무숲속에 파묻혀 대낮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다.

이 부근에는 유태인교회와 유태인부락이 있다. 구시청에서도 가까운 이 지역을 프라하에선 「겡트」라고 부르는데, 13세기 이후 유태인이 몰려들어 겡트는 유럽 최초·최대의 유태인 지구가 되었다.

19세기말에는 유태인 인구가 2만5천에 이르러, 프라하 인구의 6%를 점하기도 했다. 유태인교회는 한때 17개가 있었던 일도 있었다. 1900년 이후 겡트는 폐쇄되었으나, 나치 점령 전 이곳은 유태인의 피신처가 되어 약 6만여명이 모여 들었다. 그러나 전후 이곳에 생존한 유태인은 2,500명이었다 한다.

프라하에는 또하나의 공동묘지가 있다. 구시가의 남쪽 뷔쇄후라드 언덕에 있는 묘지다. 이곳에는 드볼작, 스페타나 등 체코가 배출한 유명 음악가와 시인, 학자, 예술가 등이 묻혀 있다. 74

〈필자= 해외의학교류회장. 최신여행정보 발행인〉